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마돈나, (①마리아 ②‘나’의 부인의 뜻 귀부인의 존칭 ③아름다운 여자나 애인 → 잃어버린 조국·구원의 여인상)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모꼬지의 방언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에 모이는 일)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도다.(날이 밝으려 함)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살과 물이 많고 맛이 단 복숭아, 관능미)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 오너라.(만남의 갈구)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마음을 사로잡는 외적인 것 겉치레)는 다 두고 몸(너의 참모습)만 오너라.

빨리 가자.(급박한 상황(새 출발의 염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발각되어서는 안되는 꿈을 추구함)이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절망적 현실)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불안 속에서의 기다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못 개가 짖도다(기다림의 초조함(시간의 촉급)).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새로운 희망이 잉태되는 곳)!

낮은 달(그믐달, 새벽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더워잡다’의 사투리)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보라.(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알푸른 연기(연약해진 자아의 정신)로 꺼지려는도다.(역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림매(그림자)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불는지-가슴이 뛰누나(시적 자아를 압박하는 상황).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마돈나에의 재촉)

마돈나, 날이 새련다(기다림의 불안과 안타까움). 빨리 오려무나. 사원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초조함)

네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침실=영원성 밤, 어둠, 육체가 갖는 영원성 즉 영원한 안식의 의미)로 가고 말자

마돈나, 늪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 다리(정신의 고비를 지나 맞는 관능의 세계) 건너 있는 내 침실(침실의 세계 → 안식과 평화의 세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열 이도 없느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기다림의 불안감)

마돈나, 가엾어라(자신에의 연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도다.(기다림에 지친 자아)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고을러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새로운 희망이 잉태되는 곳. 피폐해진 정신에 활력을 주는 곳 → 꿈과 침실이 주는 의미, 재생과 부활의 장소)임을 네야 알련만.....

주제연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얻는 꿈, 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우리 삶의 본질이 밤과 육체가 얹어 내는 세계와 다르지 않다.(정신과 육체, 어둠과 밝음, 밤과 낮이 통합된 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다.)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꿈, 침실 → 아름답고 영원한 것)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찾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마지막 갈구, 간절한 바람)

▣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낭만시

성격 - 낭만적, 감상적, 걱정적, 현실 도피적, 퇴폐적

경향 - 낭만주의적, 퇴폐적

심상 - 미지의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하는 시인의 세계관을 표현

운율 - 내재율(산문에 가까운 자유율)

어조 - 낭만적이면서 격렬한 어조

표현 - 불행한 현실을 떠나 미지의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하는 시인의 세계관을 표현

제재 - 마돈나, 침실

주제 - 아름답고 영원한 안식처의 희구.

의의 1920년대 감상적 낭만주의의 대표작

특징 ① 2행, 1연의 구조로, 총 12연으로 구성되어 있음.

② 영탄과 청유의 반복으로 간절함을 표현함.

③ 각 연의 첫 부분에 '마돈나'를 반복하여 통일감을 부여함.

출전 "백조"(1923)

▣ 핵심 정리

★ 감상 POINT

이 작품은 '마돈나', '침실', '수밀도의 네 가슴' 등의 감각적 시어를 근거로 하여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시적 화자가 '마돈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침실'이 마음의 안식과 활력을 부여하는 부활의 장소임을 고려했을 때,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아름답고 영원한 안식처를 갈구하는 내용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6연에서 시적 화자는 주로 '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밤'은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며, 시적 화자가 절대적 구원의 존재인 '마돈나'와 만나고자 하는 시간으로 나타난다. 시적 화자가 자신의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질 정도로 간절히 소망하는 이상적 세계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은 이 작품이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 준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7~12연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장소인 '침실'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낸다. '침실'이란 현실의 번민을 극복한 초월의 공간이자, 새로운 희망이 잉태되는 곳이며, 순수함이 남아 있는 부활의 공간이다. 이를 통해 '침실'을 향하는 시간인 '밤' 또한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부활을 위한 시간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시적 화자가 마

지막까지 ‘마돈나’를 간절하게 부르는 것은 ‘침실’이 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구원의 힘을 지닌 절대적 존재인 ‘마돈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감상의 길라잡이

이 작품은 낭만적 열정을 독특한 율격으로 표현한 1920년대 낭만주의의 대표적으로 서정적 자아가 보여주는 고뇌의 정체, 지향하는 세계의 의미 등이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은 밤도 모든 향연의 막바지에 다다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 순간, 즉 먼동이 트기 직전이다. 깊어 가는 밤이 아니고 막 새려는 밤이기 때문에 마돈나를 부르는 나의 마음은 한층 다급하다. 새벽이 오기 전에 나는 내 몫의 일을 해야 한다. '마돈나'와 '나'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과 같은 존재이며, 밤이 감에 따라 '침실'의 의미는 무화(無化)되어 버릴 것이다. 별이 그렇듯이, 나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존재이기에, 밤이 가기 전에 무언가를 결행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는 초조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나의 침실'은 사랑 곧 죽음이라는 등식에 기초해 있다. 김흥규 교수는 침실의 이중적 의미에 주목한다. 전반부(제1~6연)에서는 침실이 관능적인 쾌락의 장소이지만, 후반부(제7~12연)로 가면서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 간다. '늪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침실'이란 바로 죽음의 세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의 종말로서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세계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유일한 길은 죽음으로써 향의하는 것뿐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다. '갈 테면 우리가 가자, 곁들러 가지 말고'라는 말은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죽음을 통해 사랑을 실현하려는 능동적이고 저항적인 몸짓을 나타내 준다. 사랑과 죽음을 둘러싼 그의 낭만적 열정은 흔히 관능과 애정애의 도피 행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을 퇴폐적인 죽음으로의 도피나 단순한 죽음의 예찬으로만 읽을 것은 아니다. 도덕적 결단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냉정함보다는 오히려 낭만적 열정이 중요한 몫을 차지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18세 때인 1919년을 전후해서 쓰여진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1 운동 직후 지식인들의 절망은 낭만주의적 시인들에게 슬픔, 그리움, 죽음의 동경 및 예찬을 주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죽음의 예찬은 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추악한 현실에 대한 부정 의식이며 진실로 순수의 미학에 충실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의 역설적인 표현인 셈이다.

★ 감상

이상화의 초기시 세계를 대표하는 이 시는 『백조』 동인들의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18세에 창작했다고 알려진 이 작품에는 식민지 치하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사춘기 소년의 낭만적 정열로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 젊은이로서 순수하고 자유로우며 아름다운 삶의 세계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고 예찬하는 것으로 굴절되고 만다.

이 작품은 ‘마돈나’·‘침실’·‘수밀도의 네 가슴’·‘나의 아씨여’ 등의 감각적 시어들로 말미암아 간단히 남녀간의 정욕을 노래한 애정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적 자아가 ‘마돈나’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침실’은 육체적, 쾌락적, 본능적인 일반적 의미의 침실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재생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는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하여 관능적, 감상적, 낭만적 표현 방법에 의해 아름답고 영원한 꿈과 같은 안식처(安息處)를 갈구하는 내용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1연부터 마지막 12연까지 시적 화자는 연속적으로 ‘마돈나’를 부름으로써 급박한 상황을 부여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서’ 밝음이 오기 전에 ‘마돈나’가 오기를 간절히 애원하고 호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침실’의 상징 의미는 무엇일까? ‘침실’의 의미 체계를 해명할 수 있는 열쇠는 부제(副題)로 되어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 속에만 있어라’라는 에피그람[Epigram : 간결한 경구(警句)나 짧은 풍자 시구]에 있다. 이상화는 아름답고 오랜 것은 꿈속에서만 존재할 뿐 아니라, 꿈 그 자체로,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물론 ‘꿈’은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침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잠’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낮 시간의 활동을 ‘삶’이라 한다면, 밤 시간의 잠은 일종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아침의 ‘부

활'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밤은 '부활의 시간'이요, '침실'은 '부활의 동굴'이 되며 잠(꿈)은 곧 '부활'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실의 의미는 밀실(密室), 현실의 도피처, 안식처, 조국의 광복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뉘우침과 두려움의 결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꿈과 부활의 동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작품 전반에서 침실은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로, 다시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침실과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아름답고 오랜 나라'로 다양하게 변주(變奏)되면서 정신적 안식과 활력을 주는 재생의 장소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또한 '마돈나'는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일 수도 있고,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어느 젊은 여인의 애칭일 수도 있으나, 이들의 공통된 상징 의미는 '구원의 여성'으로 표상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6연까지의 전반부에서 강하게 나타나던 관능적 어조는 후반부에 이르러 어느 정도 완화될 뿐 아니라, '침실'의 상징 의미도 '부활의 동굴'로 가시화되어 관능적 쾌락의 측면도 희석된다. 번민과 집착, 고뇌로 가득한 것이 지상의 낮 세계라면, 그 일체의 번민과 집착, 고뇌를 감싸 주는 것은 비실제적인 밤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11연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상을 벗어난 환상의 세계, 바로 꿈의 세계이다. 그 꿈이 '잠속에서 꾸는 것(밤이 주는 꿈)'이건,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이상(우리가 엮는 꿈)'이건, 아니면 '죽음(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이건 간에 참된 의미에서의 부활은 오직 꿈속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침실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침실은 마돈나를 불러 사랑의 완성을 위해 꿈을 꾸는 장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 바로 죽음의 꿈이다. 왜냐하면, 그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은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침실이며, '언제들 안 갈 수 있으랴' 라는 표현처럼, 두렵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구성 형태를 갖추고 있다. 마돈나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랑의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유기적인 형태 구조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첫째 단락인 1~3연의 기다림은 '달려오너라', '몸만 오너라', '기다리노라'라는 애원과 간청이 시간의 경과와 기다림의 지속적인 심리 변화와 상징 체계를 이루면서 시적 정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둘째 단락인 4~6연에서는 '지난 밤이 새도록', '낮은 달은 빠지려는데'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초조함과, '짧은 심지를 더우잡'는 동작과, 그리고 '알푸른 연기로 꺼지려는' 것과 같은 절망에서 '앞산 그리매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라는 극적인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단락인 7~9연은 앞의 두 단락의 시간 진행과 시적 화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다림'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육체적인 결합을 환청과 환상으로 체험하면서 '내 몸에 피란 피 -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 화자의 고뇌가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 단락인 10~12연에서는 '언제들 안 갈 수 있으랴, 갈테면 우리가 가자'라며 마냥 기다리는 자세에서부터 '가자'라는 적극적인 행위로 전환되는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기다림'에 대한 절실함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기) 1단락 -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3연 2행), (승) 2단락 -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6연 2행), (전) 3단락 -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8연 2행), (결) 4단락 -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12연 2행)와 같이 가-승-전-결 형태에 적절하게 배치된 돈호법의 활용은 이 작품의 구조적인 면에서 뼈대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문형 → 서술형 → 의문형 → 서술형의 형식으로 연계시킨 것은 바로 '마돈나'에 대해 미약한 존재인 '나'의 사랑의 호소로 그것은 결단의 의지가 아닌, '듣느냐', '오느냐'와 같은 간곡한 하소연으로서의 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 체험은 형태적인 구조의 안정감을 뒷받침으로 하여 더욱 애절하고 심도 있는 사랑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 시어·시구 연구 및 분석

목거지 ; '모꼬지'이 사투리.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 등에 모이는 일.

수밀도(水蜜桃) ; 물이 많고 단맛이 나는 복숭아. 여인의 젖가슴을 비유

알푸른 ; 푸른빛이 얹게 물든

그르메 ; 그림자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 ; '진주'는 마음을 사로잡는 외적인 것, 겉치레를 상징한다.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 ; 불행하고 절망적인 현실, 20년대 초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상징한다.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 침실의 세계는 안식과 평화의 세계이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

나무다리 저 편에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 침실은 새로운 희망이 잉태되는 곳이다. 왜냐 하면 피폐해진 정신에 안식과 활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밤이 주는 꿈, ~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 밤의 꿈, 우리의 꿈, 목숨의 꿈이 같다. 즉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밤과 육체가 얹혀 내는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정신과 육체, 밤과 낮의 세계가 혼합되어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침실로 표현되고 있다.

★ ‘침실’의 의미

이 시에서 침실은 ‘오랜 나라’, ‘부활의 동굴’,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침실’, ‘아름답고 오랜 거기’ 등으로 변주(變奏)되어 있다. 이러한 침실의 의미는 밀실(密室), 도피처, 안식처, 조국의 광복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10연, 11연에서 표현되듯 침실의 세계는 뉘우침과 두려움의 결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외나무다리 저편의 꿈과 부활의 동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피폐해진 정신에 안식과 활력을 주는 재생의 장소가 바로 침실인 것이다.

침실은 순간적 쾌락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다. 또 7연의 ‘오랜 나라’, 즉 영원한 안식의 장소를 ‘죽음의 세계’로 볼 때, 죽음을 계기로 한 사랑의 재생을 노래한 것이 된다.

내용확인

1. 시적 화자의 처한 상황/ 정서/ 태도

2. 제목의 함축성

나의 침실 : ()

제목의 의미 :

3. 명령형 어미를 모두 찾아 적으라.

:

4. 청유형 어미를 모두 찾아 적으라.

:

5. 명령형, 청유형 어미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6. 시간적 배경을 가리키는 표현을 모두 적으라.

7. '사원의 쇠북이 우릴 비웃기'의 뜻

8. '침실'과 동일한 표현

9. 침실이 있는 위치를 시에서 찾아 적으라.

10. 다음 단어의 뜻을 적으라.

1) 목거지:

2) 수밀도:

3) 그리메 :

11. 핵심정리

갈래 - (), (), ()

성격 - (), (), (),

(), ()

심상 - ()의 () 세계를 동경하는 시인의
세계관을 표현

어조 - ()적이면서 ()한 어조

제재 - (), ()

주제 - ()

서술형

1. 이 시에서 부활을 위한 시간이 '밤'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마돈나'를 기다리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3.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침실로 가자'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4. 이 시의 '마돈나'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5. 화자의 지향점이 드러난 공간을 찾아 이 음절로 적으라.

6.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세 개 이상 적으라.

7. 이 시에서 통과 의례(通過儀禮)의 고난과 관계 깊은 시어 둘을 찾아 쓰라.

8. 이 시의 작가가 참여한 동인지 이름을 쓰라.

9. 현재 화자의 상황과 심리를 서술하시오.

10. 이 시에서 관능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 적으라.

11. 이 시에서 화자의 불안감이 드러나는 시구를 찾아 세 개 이상 적으라.

12. 이 작품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시어(시구)를 모두 찾아 적으라.

정답 및 해설

내용확인

1. <답>

아침이 밝아 오려는 상황에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며 ‘마돈나’가 와서 ‘침실’로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2. <답>

새로운 재생과 부활의 공간

제목의 의미 : 화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재생과 부활의 이상향의 공간’(=침실)을 희망하고 갈망함.

3. <답>

달려오너라, 오너라, 안아라

4. <답> 오려무나, 가자, 말자

5. <답>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바람과 소망을 강조한다.

6. <답>

먼동이 트기 전, 어느덧 첫 닭이 울고 못 개가 짖도다,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물결도 찾아지려는다.

7. <답> 시간적 흐름

8. <답> 오랜 나라, 부활의 동굴

9. <답>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10. <답>

목거지 : 모꼬지의 방언으로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 등에 모이는 일

수밀도 : 살과 물이 많고 맛이 단 복숭아

그림자 : 그림자

11. <답>

갈래 - 자유시, 서정시, 낭만시

성격 - 낭만적, 감상적, 걱정적, 현실 도피적, 퇴폐적

심상 - 미지, 아름다운

어조 - 낭만, 격렬

제재 - 마돈나, 침실

주제 - 아름답고 영원한 안식처의 회구.

서술형

1. <답>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이 아닌 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는 현실의 공간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꿈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꿈을 꿀 수 있는 ‘밤’을 부활의 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답>

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긴 행의 길이로 호흡을 급박하게 설정하려 초조함과 불안감을 나타내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화자가 추구하는 부활은 밤이 지난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부분은 시적 화자의 불안감이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의 길이로 인한 급박한 호흡은 시적 화자의 급박한 마음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3. <답> 일제 강점으로부터 조국의 독립

‘침실’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일제 강점하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조국의 독립, 광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답>

이 시에서 마돈나는 화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존재로 화자가 사랑하는 젊은 여인이자 진실한 마음의 동반자로 구원의 여인일 수도 있고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 인류를 구원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또한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는 조국일 수도 있다.

5. <답> 침실

6. <답>

① 12연 긴 연에서 유기적인 흐름이나 구성을 보이기 보다는 각 연마다 화자의 자유분방한 감정을 분출하여 화자의 간절함을 표현한다.

② 영탄과 청유의 반복으로 간절함을 표현한다.

③ 각 연의 첫 부분에 ‘마돈나’를 반복하여 통일감을 부여하고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제공한다.

7. <답> 외나무다리, 동굴

8. <답> '백조'

박종화, 홍사용, 나빈(도향), 현진건, 박영희 등이 함께 활동했다.

9. <답> 화자는 동이 트기 전 긴장과 불안, 초조를 느끼며 간절히 마돈나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10. <답> 수밀도

11. <답>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 아, 행여
누가 볼는지 - 가슴이 뛰누나 /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
다.

12. <답>

침실, 오랜 나라, 부활의 동굴